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2년 2월 22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일자리경제과	담당자	•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정 ☎440-4231 • 담당자 조명란 ☎440-423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에 월 30만 원 지원
- 22(화)부터 접수, 정년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 기대 -

인천광역시는 22일,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「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~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,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.

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.

시는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542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.

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,

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” 고 말했다.

신청 기간은 22일(화)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
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itp.or.kr) 공고문을 참조하거나,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(032-725-3032)로 문의하면 된다.